



이창용 한은 총재, G20·IMF 회의 참석차 美 출국

한은은행은 이창용 총재(사진)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출국해 19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은행



중부발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 금상

1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지난달 30일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2025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허담 한국중부발전 차장(오른쪽)이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부발전



청년취업사관학교 24호 ‘구로캠퍼스’ 개관

평균 취업률 75%를 자랑하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24번째 캠퍼스인 ‘구로캠퍼스’를 새롭게 개관한다. 서울시는 AI·디지털 분야 실무형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 거점인 청년취업사관학교 24호 구로캠퍼스를 구로구 오류2동(서울시 50플러스 남부캠퍼스 지하 1층)에 새롭게 개관하고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



스타벅스, 오는 26일까지 ‘옥토버 라떼 페스타’

스타벅스코리아가 13일부터 26일까지 ‘옥토버 라떼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올해 들어 8월까지 라떼 음료 3종(카페 라떼, 플랫 화이트, 스타벅스 돌체 라떼) 누적 판매량 5000만 잔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라면 누구나 매일 한 번 스타벅스 앱 내 라떼 페스타 이벤트 배너의 ‘롤렛 챌린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스타벅스



동양생명, 취약계층 어르신 300명에 건강식 대접

동양생명은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사단법인 ‘사막에길을내는사람들’산하 영등포쪽방상담소에 방문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어르신 300분께 건강식을 대접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양생명

LG,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에 계열사 역량 집중

경주 시내버스 70대에 래핑 광고
부대행사·공식 협찬사 등 참여

LG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

LG는 지난 9월 30일부터 경주 시내버스 70대에 APEC을 알리는 래핑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경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가운데 절반가량이다. 래핑한 버스들은 첨성대, 천마총,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등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를 비롯 시내 곳곳을 누비며 ‘달리는 APEC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말에는 민간기업 중 처음으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APEC 정상회의 홍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꾸준히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LG가 경주 시내버스에 APEC을 알리는 래핑광고를 하고있다_경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모습. /LG

이후 LG는 광화문, 시청, 명동, 홍대 입구역, 강남 코엑스, 파르나스호텔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지역의 7개 대형 전광판에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제작한 APEC 공식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광장 등 세계적 명소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에서도 같은 영상을 내보내며 경주에서

열리는 APEC을 알려온 바 있다. KT X 경주역에 위치한 전광판에도 지난 달 말부터 이 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또 ㈜LG와 LG전자는 APEC 부대 행사인 ‘2025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GITC)’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장애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도와 진학, 취업 등 사회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IT 대회로,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SDF 구현 속도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난양공대-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HMGICS 내 3자 기업연구소 개소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가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구현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스마트팩토리이자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 테스트베드인 HMGICS는 지난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난양공대(NTU)’, ‘싱가포르 과학기술청(A*STAR)’과 HMGICS내에 ‘현대차그룹-NTU-A*STAR 기업 연구소’를 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서 3자 기업 연구소 설립 조인식을 맺은 지 1년 만의 성과다.

3자 기업연구소는 싱가포르 모빌리티 제조 분야 최초의 산·학·연 연구소로 HMGICS 내부에 조성되고, 학문적 연구와 실제 산업 적용을 연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HMGICS가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제조기술 과제를 발굴·제공하면, NTU와 A*STAR가 연구 및 개발과 실증에 함께 참여하며 학문적



‘현대차그룹-NTU-A*STAR 기업 연구소(Hyundai-NTU-A*STAR Corporate Lab)’ 연구원들이 HMGICS에서 연구하는 모습. /현대차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 분야는 AI, 로보틱스, 스마트 제조, 디지털 전환 등 차세대 기술로,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SDF 구현을 견인하고, 싱가포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제조 연구개발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현지 제조 R&D 생태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스마트 제조를 위한 AI 기술 ▲생산 효율, 품질, 작업자 업무 환경 향상을 위한 로봇 기술 ▲자동차 부품용 3D 프린팅 기술 등이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百貨, 황금연휴 外人 매출 40% ‘썰렁’

명동 본점, 中 고객매출 45% ↑
롯데타운 잠실, 美 고객 등 방문

롯데백화점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황금연휴 기간 외국인 고객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신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재개와 국경절 연휴가 맞물리면서 서울 명동과 잠실 등 주요 점포를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명동 상권의 본점은 중국인 고객 매출이 45% 늘어나는 등 ‘유커 효과’를 봤다. 본점 9층 K-패션 전문

관 ‘키네틱 그라운드’는 연휴 기간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이 평소 50% 수준에서 80%까지 확대됐으며, ‘마네킨’ 등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인기를 끌었다. 럭셔리 상품군에서도 중국인 고객 매출이 90% 급증했다.

롯데타운 잠실 역시 외국인 매출이 40% 증가했다. 기간 중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순으로 방문이 많았으며, 특히 원화 약세 영향으로 미국 고객의 럭셔리 상품군 매출이 35% 신장했다. 석촌호수 나들이객 효과로 다이닝 및 F&B 상품군 매출도 40% 성장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CJ문화재단, 개발지원 뮤지컬 무대 올려

오는 28일부터 ‘프라테르니테’ 공연

CJ문화재단이 뮤지컬 창작자 지원 사업 ‘스테이지업(STAGE UP)’을 통해 개발을 지원한 뮤지컬 ‘프라테르니테’가 10월 초연 무대에 오른다고 12일 밝혔다.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CJ가 가장 잘하는 문화로 다양한 문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중 스테이지업은 뮤지컬 창작자 지원사업으로 작품 기획 개발부터 제작사 연계까지 시장 진출 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양극화가 심화되는 공연 시장에서 뮤지컬 창작자들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023년 스테이지업 선정작인 뮤지컬 ‘프라테르니테’는 CJ문화재단의 발굴·개발 지원을 거쳐 완성된 작품으로 혁명이라는 개념이 태동하던 18세기 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다. 한때 형제 같은 동지였던 두 남자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대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체험 프로그램 진행

상춘식품과 발효식품 만들기 체험

풀무원 뮤지엄김치간은 궁중장계승 기업 상춘식품과 함께 장, 김치 등의 한국 대표 발효식품을 만들어보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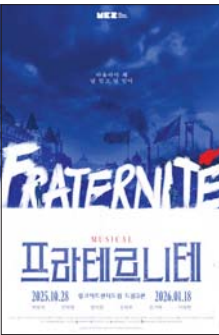
12일 밝혔다. 상춘식품은 1994년 설립되어 고추장, 된장, 간장 등 한국의 대표 발효식품인 장을 명인들과 함께 계승해 오고 있는 장 전문 식품기업이다. 이번 협업은 국내외 체험객들에게 김치, 장 만들

APEC 부대행사 중 유일한 장애인 관련 행사다. GITC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주)LG, LG전자의 지원으로 각국을 순회하면서 열렸으며, 현재까지 40개국의 4500여 명이 참가했다.

LG생활건강은 APEC 공식협찬사로 참여해 울릉도 최초의 먹는 샘물인 ‘울림워터’ 생수 9만 6000병을 APEC 행사 기간에 지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경주시 일대 주요 시설에 통신 장치를 추가 구축하고, 전용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APEC 기간 중 열리는 ‘APEC CEO SUMMIT 2025’ 관련 주요 행사 장소인 황룡원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APEC 기념 불꽃쇼가 열리는 포항 영일대 인근에는 이동차량기지국을 배치하는 등 고품질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컬 ‘프라테르니테’는 CJ문화재단의 발굴·개발 지원을 거쳐 완성된 작품으로 혁명이라는 개념이 태동하던 18세기

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다. 한때 형제 같은 동지였던 두 남자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하면서 대립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작품은 지난해 4월 리딩 쇼케이스 후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해 추가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10월 28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링크아트센터드림드림 3관에서 정식 공연된다. 예매는 티켓링크,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예매처에서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 ◆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박종환 △안전보건감독국장 오영민
-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 나현주

부음

▲오정민(47세)씨 별세, 정성직(충남도청 공보담당관실 주무관)씨 부인상 = 11일 오전 2시 30분, 대전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장지 대전추모공원. 042-220-9870